

Daily Auto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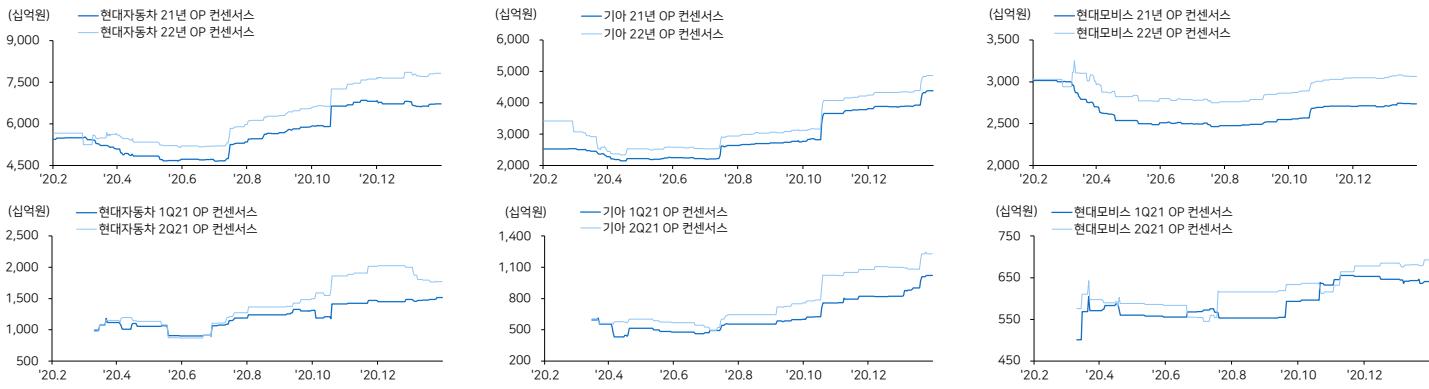
2021. 2. 25(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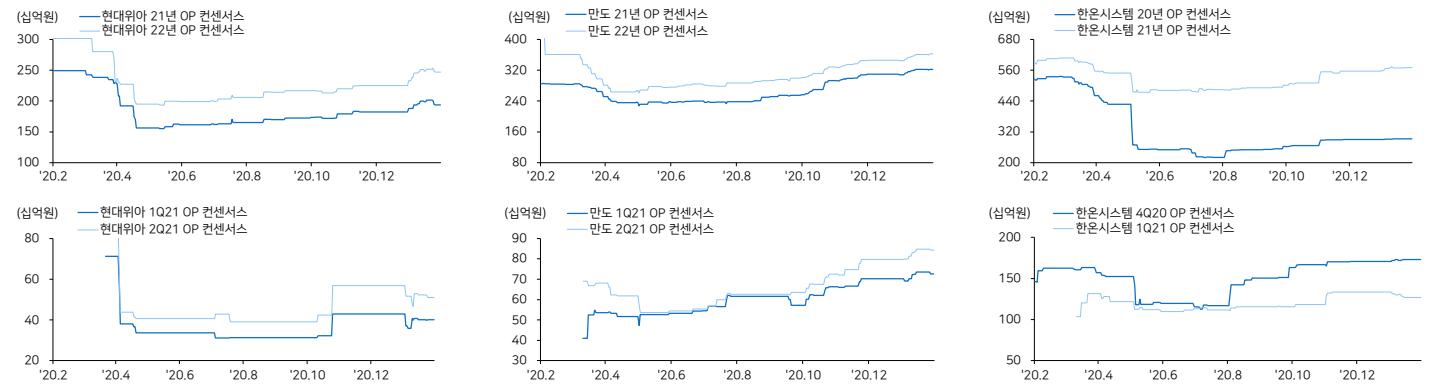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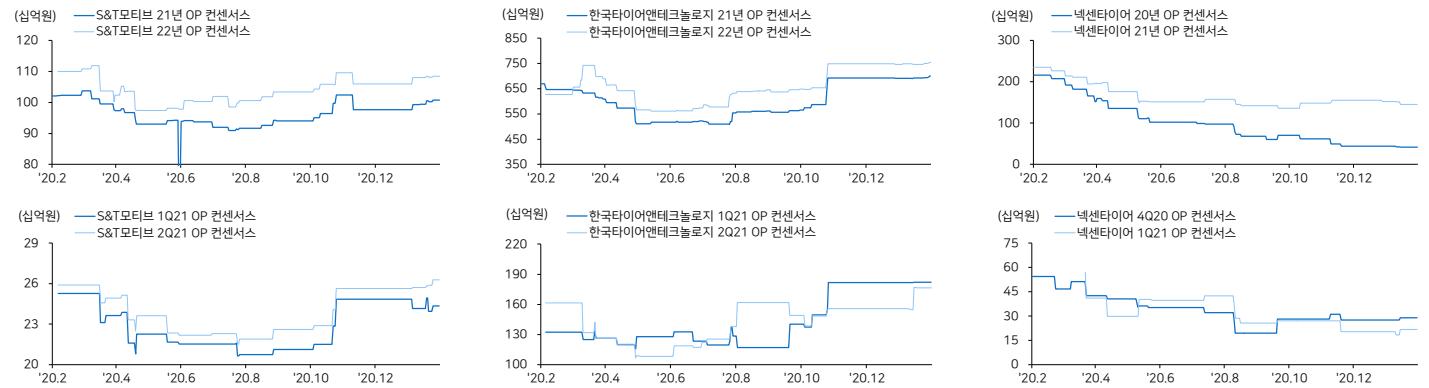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도심형EV CT0에 美 항공우주 스타트업 CEO 영입 (중장기보)

현대자동차는 UAM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에 미국 항공우주 스타트업 오프너의 CEO 출신인 벤 다이어친을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CTO는 UAM 부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체 개발과 선형 연구개발 업무를 이끄는 역할을 맡을 계획.

<https://bit.ly/3urM84Z>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하려는 GM, 현대차 배터리 교체 리콜에 마음 바꿀까? (오토데일리)

GM은 '20년 11월부터 셰보레 블트EV의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을 원회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 용량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리콜에 진행 중.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처럼 배터리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

<https://bit.ly/3qUjKGx>

현대모비스, 작년 '미래차 핵심기술' 2000여건 특허 출원 (조선비즈)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동화 등 미래차 핵심기술 분야를 비롯한 연구개발 영역에서 약 2000건의 글로벌 특허를 출원함.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식재산 개발 활동과 함께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69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美, 韓·日 동맹국과 반도체·전기차·'중국조르기' 나선다 (한국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동맹국들과 연계를 강화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구축할 계획.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동맹국과 만들어 중국에 의존하는 현 체제를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됨.

<https://bit.ly/201SgT>

차반도체 글로벌 품귀에 현대차도 생산 조절 검토 (동아일보)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생산법인(HMMR)의 SUV '크레타'의 양산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 차량용반도체 공급 부족에 최근 미국 남부 한파로 산업시설 가동중단이 더해지면서 크레타에 들어갈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이 원인.

<https://bit.ly/3bAzmZh>

'추락사고' 우즈가 제네시스 GV80 안전성 관심집중 (헤럴드경제)

차량전복 사고를 당한 미국의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가 무사히 구조된 가운데,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인 현대 제네시스 GV80 내부에 손상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져 현지에서 이목을 끌고.

<https://bit.ly/2Panwh9>

'친환경 타이어' 시장 카진다..연평균 17% 성장 전망 (이데일리)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친환경 타이어 시장도 급성장 중. 전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친환경 타이어 시장이 연평균 약 17%씩 가파른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https://bit.ly/3dIagug>

벤츠에도 부는 친환경 물결...C클래스 출 라인화 전동화 (시사저널)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를 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더 뉴 C클래스 전 차종에 전동화를 적용함. 세계 최초 자동차를 만들며 내연 기관 시대를 이끌어온 벤츠도 친환경 시대 흐름에 따라 전동화 모델을 확대하는 중.

<https://bit.ly/2P8Dwv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압박이 신의 설득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